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202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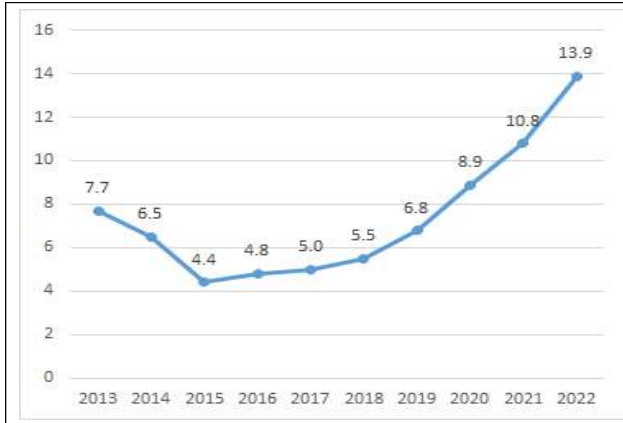
< 목 차 >

I. 연구배경	1
II.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관련 선행연구	2
III.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직접적 피해액	11
IV.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간접적 피해액	17
V. 주요 피해기업 대상 인터뷰	31
VI. 요약 및 제언	34
참고문헌	36
붙임 1. 상표심사처리기간 관련 출원인 대상 설문지	37
붙임 2.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피해기업 인터뷰안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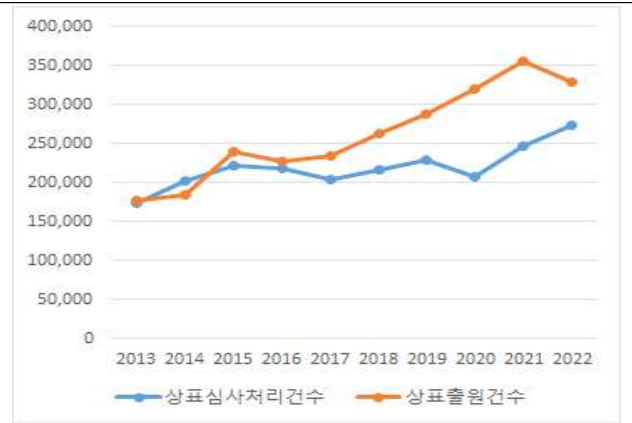
I 연구배경

- 우리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상표의 조기 권리화가 중요함에도, 최근 상표 심사처리기간이 점차 지연되는 경향이 발생

< 상표심사처리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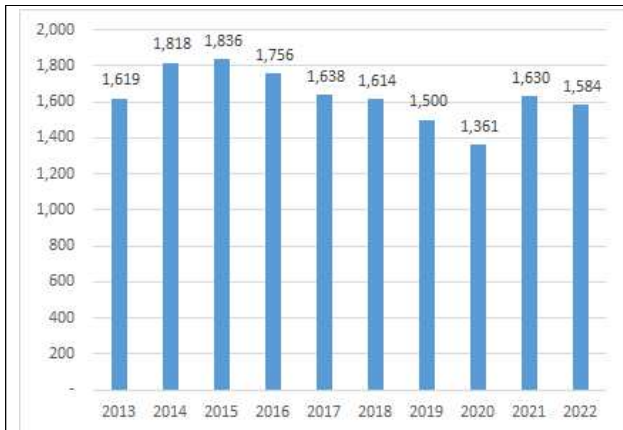
< 상표출원건수 및 심사처리건수(다류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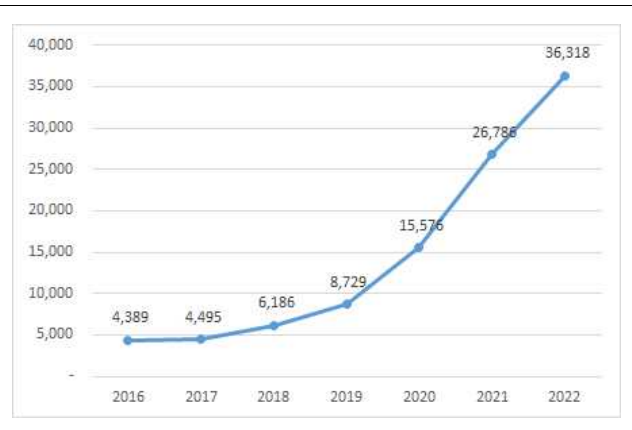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원인으로 i) 상표출원건수 대비 충분한 심사관 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ii) 상표우선심사 신청의 증가로 인한 일반 상표심사의 지연을 꼽기도 함

<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



< 상표우선심사 신청건수 >



※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 연간 상표디자인 처리건수 / 상표디자인심사관 수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 이에 본 연구는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 직접적 피해액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접적 피해액은 기존 연구 결과와 한국은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출

II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관련 선행연구

1. 산업연구원(2007)

- 특허를 등록하기 위하여 심사청구되는 기술 자료들에 대한 1차 심사처리기간이 변화할 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총생산액과 총부가가치액의 변화를 추계
 - 2006년까지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유효 IP스톡 증가를 추계하고, 해당 증가분에 의해 총생산 및 총부가가치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자본, 노동, 중간재 등 생산요소가 생산함수에 의하여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생산과정이라고 보면,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변수인 기술수준이 변화하면 생산량이 변화
 - 기술수준은 기술자본 스톡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기술자본 스톡의 변화는 R&D 투자 및 기술도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R&D 투자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양적 지표를 유효특허스톡(등록건수)로 간주하고, 유효특허스톡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 최종적으로 위 추정결과를 1차 심사처리기간의 변화가 등록특허 flow에 미치는 효과와 결합하여, 1차 심사처리기간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 총생산액과 총부가가치의 변화를 추계

□ 분석 데이터

- 1997년~2006년의 제조업부문 23개 산업을 각각 하나의 횡단면 유형으로 설정하고 각 산업의 생산, 고용, 중간재투입, 유형자본스톡, 특허스톡 자료를 수집하여 산업 패널(panel) 데이터를 구축

□ 분석 모형

- $$\log(\text{sales}) = \beta_0 + \beta_1 \log(\text{sales}(-1)) + \beta_2 \log(\text{employ}) + \beta_3 \log(\text{cstmat}) \\ + \beta_4 \log(\text{asstphy}) + \beta_5 \log(\text{pstck}) + \beta_6 \text{DUM97} + \varepsilon$$

- sales : 총생산액, 2000년 불변가격 기준
- sales(-1) : sales의 1 시차 선행 변수
- emply : 월평균 종사자 수
- csmat : 주요 중간재 투입액, 2000년 불변가격 기준
- asstphy : 연말 유형자산 잔액, 2000년 불변가격 기준
- pstck : 연말기준 유효 등록특허 건수(1997년 이후 등록건)
- DUM97 : 2000년과 이후 기간을 1로 하는 더미변수

※ sales는 명목 값을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ppi)로 할인
 asstphy는 명목 값을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로 할인
 cstmat는 명목 값을 중간재 가격지수(pm)로 할인

□ 분석 결과

- 99%의 신뢰도로서 $\ln(\text{pstck})$ 의 계수 값인 유효특허스톡의 생산탄력성은 0.03*으로 분석됨

* 제조업부문 유효특허스톡이 1% 증가할 때, 제조업부문 총생산액은 0.03% 증가

- 2006년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전년 대비 0.65년 단축됨으로 인하여 총생산액은 1조 6,318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6,647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
- 2003~2006년 누적 효과는 총생산액 2조 4,464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9,926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

< 산업연구원(2007)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의 단축효과 >

(단위 : 백만원)

연도	생산자물가지수 (ppi)	총생산액 효과		총부가가치 효과	
		연도별	누적	연도별	누적
2003년	98.1	69,321	69,321	26,638	26,638
2004년	105.5	166,042	235,364	65,302	91,940
2005년	108.8	579,212	814,575	235,941	327,880
2006년	112	1,631,849	2,446,424	664,730	992,610

주 : 2006년 기준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전년 대비 0.65년(7.8개월) 단축 가정

2. London Economics(2010)

□ EPO, USPTO, JPO에 출원되는 특허를 기준으로 심사처리기간 1년 지연되었을 때의 경제적 손실 추정

○ 특허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i) 특허가치 하락, ii) 특허불가발명(non-patentable invention)의 출원비용 증가, iii) 특허불가발명의 독점효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 3종의 피해를 가정

- (특허가치 하락) 특허 보호기간은 출원 후 20년인데 심사처리기간 지연은 등록 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해당 특허의 가치를 하락시킴

※ 심사처리기간이 길어지면 특허획득의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제품 출시가 늦어져 특허로부터 얻는 이익이 감소함

- (특허불가발명의 출원비용 증가) 비용(출원비용, 심사청구비용) 낭비

- (특허불가발명에 의한 사회적 손실) 특허불가발명 출원의 심사 대기 중 독점효과에 의한 부당이익 발생

□ 분석 데이터

○ EPO의 PATSTAT, WIPO 통계, 각국 특허청의 연례보고서 및 통계, 삼극특허 통계 보고서를 활용

□ 분석 방법

○ 특허가치 하락 = 등록특허감소건수* × 평균특허가치**

* 등록특허감소건수 = 대상출원건수 × 출원감소율 × 등록률

** PATVAL 설문조사 결과 유럽의 평균 특허가치 = 2.7백만 파운드

○ 특허불가발명 출원비용 = 특허불가발명출원 증가건수* × 평균출원비용**

* 특허불가발명출원 증가건수 = 대상출원건수 × 1.2 × (1/평균심사처리기간)

** 평균출원비용 = 관납료 + 번역비 + 대리인 비용

○ 특허불가발명에 의한 사회적 손실 = Value* × 대상출원건수 × 12.5%**

* Value = (심사지연기간/평균존속기간) × 평균등록특허가치 × 50%

** 사회적손실은 초과이윤의 12.5%로 나타난다고 가정

□ 분석결과

○ 특허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13.4조원(75.7억 파운드)의 피해 발생 추정

< London Economics(2010)의 특허심사 1년 지연의 피해액 추정 결과 >

(단위 : 백만 파운드)

피해 유형	EPO	USPTO	JPO	계
i) 특허가치 하락	1,091	4,444	495	6,030
ii) 특허불가발명의 출원비용 증가	72	251	36	359
iii) 특허불가발명의 독점효과에 따른 사회적 손실	195	885	98	1,178
총계	1,358	5,580	629	7,567

- 특허가치 하락 피해액 산출과정

< 기술혁신 유인감소에 따른 특허가치 하락 >

추정과정	EPO	USPTO	JPO	계	비고
대상출원건수 (A)	7,283	41,096	19,616	67,995	첨단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출원, 상업적 목적 출원
특허가치 감소율(%) (B)	9%	7%	6%	7%	1/특허의 평균 수명
특허가치의 변화에 따른 특허 출원건수의 민감성 (C)	1.2	1.2	1.2	1.2	1.2 (가정)
특허출원 감소율(%) (D=B*C)	-11%	-8%	-8%	-8%	
특허등록률(E)	51%	49%	49%	49%	(등록/출원)의 평균
등록특허 감소건수(F=A*D*E)	-404	-1,646	-733	-2,783	
평균 특허가치(G)	£2.7m	£2.7m	£0.7m	£2.1m	특허 1건의 경제적 가치
특허출원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H=F*G)	£1,091m	£4,444m	£495m	£6,030m	

- 특허불가발명의 출원비용 증가

< 특허불가발명의 출원비용 >

추정 과정	EPO	USPTO	JPO	비고
대상출원건수 (A)	13,056	77,770	36,997	첨단과학기술분야 출원
심사처리기간 (B)	4	3	6	PATSTAT의 추정값
특허가치의 변화에 따른 특허 출원건수의 민감성 (C)	1.2	1.2	1.2	1.2로 가정
특허불가발명 출원건수 ($D=A*(1/B)*C$)	3,839	28,343	7,229	-
특허출원 1건당 출원비용 (E)	£18,513	£8,870	£4,987	평균 특허출원비용
증가한 출원건수 비용 (F=D*E)	£72m	£251m	£36m	-

- 특허불가발명의 독점효과에 따른 사회적 손실

< 특허불가발명의 사회적 손실 >

추정 과정	EPO	USPTO	JPO	비고
대상출원건수 (A)	13,056	77,770	36,997	첨단과학기술분야 출원
평균 특허가치 (B)	£2.7m	£2.7m	£0.7m	특허 1건의 경제적 가치
심사처리기간(년) (C)	4	3	6	평균 심사처리기간
특허권 존속기간(년) (D)	11	15	16	평균존속기간
심사대기 중인 출원의 가치 ($G=B*(1/D)*50\%$)	£0.1m	£0.1m	£0.0m	Value
심사대기 중인 출원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 ($H=G*A$)	£1,560m	£7,077m	£782m	
사회적 손실 ($I=H*12.5\%$)	£195m	£885m	£98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신규등록건수 증가량 추정 >

구분	신규등록건수 예측	2013	2014	2015	2016	2017
특허	심사 역량 개선	103,067	132,038	134,909	134,909	129,376
	2013년 심사 역량 유지	103,067	103,067	103,067	103,067	103,067
	신규 등록특허 증가량	0	28,972	31,842	22,888	26,309
상표	심사 역량 개선	81,619	83,513	84,144	83,846	83,833
	2013년 심사 역량 유지	81,619	81,619	81,619	81,619	81,619
	신규 등록상표 증가량	0	1,894	2,525	2,227	2,214
디자인	심사 역량 개선	34,035	42,563	44,607	44,951	44,908
	2013년 심사 역량 유지	34,035	34,035	34,035	34,035	34,035
	신규 등록디자인 증가량	0	8,528	10,572	10,916	10,874

□ 2017년 IP유효스톡 증가량 및 증가율 추정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IP유효스톡 변화 추정 >

연도	특허			상표			디자인		
	신규 등록건수 증가량	유효스톡 증가량	유효스톡 증가율	신규 등록건수 증가량	유효스톡 증가량	유효스톡 증가율	신규 등록건수 증가량	유효스톡 증가량	유효스톡 증가율
2014	28,972	28,972	3.406%	1,894	1,894	0.144%	8,528	8,528	3.093%
2015	31,842	57,994	6.660%	2,525	4,419	0.316%	10,572	18,159	6.501%
2016	22,888	75,235	8.462%	2,227	6,645	0.449%	10,916	27,069	9.582%
2017	26,309	94,221	10.404%	2,214	8,859	0.567%	10,874	34,953	12.250%

주 1) 신규 등록건수 = 연간 심사처리건수 × 과거 3년간 등록률

주 2) 유효스톡수 = 전년도 유효스톡수 × (1 - 진부화율) + 당해연도 신규 등록건수

주 3) 증가량과 증가율은 2013년 심사역량 유지 시와 2014년 이후 심사역량 개선 시 연간 신규 등록건수 및 유효스톡수의 차이임

□ 특허·상표·디자인 유효스톡의 생산탄력성 추정

○ 생산탄력성 : 특허 0.022, 상표 0.033, 디자인 0.026

○ 특허의 경우 방어출원이 많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상표·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디자인은 특허 대비 출원건수도 작을뿐더러, 유통기한이 짧아 반드시 이용될만한 디자인만 출원되는 특성 상 디자인스톡의 생산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상표의 경우 유사상표 등 브랜드 1개당 복수개의 상표가 출원되고 영구적이므로, 상표의 유효스톡 변화율이 생산 변화량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IP유효스톡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2017년까지의 거시경제 효과는 디자인 > 특허 > 상표 순으로 나타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 >

(단위 : 백만원)

연도	특허			상표			디자인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2014	1,343,357	283,777	4,347	174,416	61,677	1,125	1,475,284	311,646	4,774
2015	2,761,049	583,257	8,935	402,431	142,307	2,596	3,251,238	686,806	10,521
2016	3,679,261	777,224	11,906	599,170	211,878	3,865	5,013,572	1,059,090	16,224
2017	4,733,956	1,000,023	15,320	791,544	279,905	5,106	6,692,758	1,413,809	21,658
총계	12,517,624	2,644,280	40,508	1,967,562	695,768	12,692	16,432,852	3,471,351	53,178

- 결과적으로 상표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4년(2014~2018년)간 2조원의 생산증대효과 발생 예측

4. 본 연구의 차별점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을 직접적 피해액 산출과 간접적 피해액 산출로 구분하여 수행
 - 직접적 피해액은 “출원인(기업 등)이 인식하는 피해액”으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 경영상 손실, 모방상품 피해 등을 포함
 - * (직접적 피해 유형) 상품출시 지연에 따른 매출액 손실, 후속 상품 출시 지연 손실, 매물비용 및 사업전환비용, 모방상품 피해, 해외출원 지연, 기존 상표가치 하락 등
 - ☞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겪은 직접적 피해액 및 피해유형을 조사
 - 간접적 피해액은 “당초 예측보다 적게 산출된 상표등록건수 감소에 따른 거시경제적 피해액”으로 과소 발생한 상표의 생산 기여분을 의미
 - ☞ 기존의 유일한 상표심사처리기간 관련 연구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생산탄력성 분석 결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22)의 상표등록건수 예측치 실제 상표등록건수간 차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획득한 산업별 매출액 데이터를 결합하여 피해액 추정
- 기업 대상 인터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피해 정도를 파악
 - 설문조사에서 피해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 인터뷰 수행
 - 금전적 및 비금전적 피해사례 파악
 - 기업들이 원하는 상표심사처리기간과 실제 상표심사처리기간간 괴리의 정도를 파악
 - 상표심사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도 파악

Ⅲ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직접적 피해액

1. 조사 개요

□ 조사 범위 및 대상

- (목표 모집단)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상표 출원 이력이 있는 국내 출원인
 - 조사 모집단 설정 후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 결과 취합 후 모수 추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나, 과제 기간 및 예산 문제로 응답 결과를 토대로 분석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준시점) 최근 5년(2019년~2024년 현재)
- (조사 실시기간) 7월 19일 ~ 8월 14일, 26일간
- (조사 방법) 설문 URL 또는 이메일을 통한 조사표 회수
 - 특허청DB에 등록된 상표 출원인 중 설문조사 동의자(특허청 협조)
 - 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기관 협조를 통한 이메일 발송)
- (조사 내용) 상표 출원 건에 대한 평균 심사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자사의 피해액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중, 경제적 손실의 유형 및 정책 개선방향 등

□ 조사 결과

- (회수건수) 해당 기간 국내 상표 출원 경험이 있는 128인이 응답

< 응답자의 출원인 유형별 분포 >

(단위 : 건,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합계
7	8	52	43	18	128
5.5%	6.3%	40.6%	33.6%	14.1%	100.0%

2. 분석 결과

□ (상표심사처리기간에 대한 기대 수준) 응답자는 상표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9.6개월 소요될 것으로 기대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은 12개월 정도 소요할 것으로 기대한 비율이 높은 반면, 소상공인과 개인은 6개월 이내(우선심사) 상표심사처리를 필요로 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상표심사처리기간에 대한 기대 수준 >

(단위 : %, 개월)

응답자 유형	~6개월	~12개월	~24개월	24개월~	평균 (개월)
대기업	0.0%	<u>5.5%</u>	0.0%	0.0%	12.2
중견기업	1.6%	<u>3.1%</u>	1.6%	0.0%	12.4
중소기업	14.1%	<u>18.8%</u>	7.8%	0.0%	9.7
소상공인	<u>18.0%</u>	10.9%	3.9%	0.8%	9.0
개인	<u>7.0%</u>	6.3%	0.8%	0.0%	8.3
전체	40.6%	44.5%	14.1%	0.8%	9.6

□ (실제 소요된 상표심사처리기간) 실제 상표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0개월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5.4개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됨

-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18개월 이내에 처리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은 평균 19.7개월, 소상공인은 15.2개월 소요되었다고 응답

< 실제 소요된 상표심사처리기간 >

(단위 : %, 개월)

응답자 유형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24개월~	심사 중	평균 (개월)
대기업	0.0%	0.0%	<u>4.7%</u>	0.0%	0.8%	0.0%	19.7
중견기업	0.8%	1.6%	<u>2.3%</u>	1.6%	0.0%	0.0%	14.3
중소기업	2.3%	10.2%	<u>18.8%</u>	7.0%	0.8%	1.6%	14.9
소상공인	2.3%	6.3%	<u>13.3%</u>	7.8%	0.0%	3.9%	15.2
개인	1.6%	4.7%	<u>5.5%</u>	0.8%	0.0%	1.6%	13.2
전체	7.0%	22.7%	44.5%	17.2%	1.6%	7.0%	15.0

□ (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 응답자의 54.7%(n=70)가 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해 자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

- 응답자 중 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비율이 높은 순서는 소상공인(62.8%), 대기업(57.1%), 중소기업(53.8%)임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겪은 피해규모는 평균 13.7억원(n=55, 피해 규모 합계액 727.2억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대비 1.1%로 추산됨
- 상표 심사처리기간지연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체감 규모는 개인(51.9%), 소상공인(39.7%), 중견기업(12.9%) 순으로 높았음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비율 >

(단위 : 억원, 억원, %)

응답자 유형	상표 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연 매출액 (평균)	연 매출액 대비 피해 규모
	피해 있음	피해 규모 (평균 금액)		
대기업	57.1%	55.2	26,350	0.2%
중견기업	37.5%	110.0	850	12.9%
중소기업	53.8%	3.8	245	1.5%
소상공인	62.8%	8.6	22	39.7%
개인	44.4%	6.8	13	51.9%
전체	54.7%	13.7	1,287	1.1%

- 한편, 응답자의 11.7%는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금전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경제적 손실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고 토로

□ (피해 유형) 피해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 각 피해 유형별로 자사가 입은 손실 비중을 응답하도록 한 뒤 이를 취합한 결과, ‘상품 출시 지연으로 매출액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18.0%로 가장 높았음

- 상표 등록 지연에 따른 사업전환 시 매물비용(16.7%) 및 경영상 피해(14.3%)도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예시) 등록을 예상하고 상품 등을 준비하고 일부 판매를 시작했지만, 16개월 후 에서야 등록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함에 따른 비용적, 시간적 손실 발생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 유형별 비율 >

피해 유형	피해 비중(%)
해당 상품출시 지연에 따른 매출액 손실	18.0%
등록될 줄 알고 투자한 비용(매몰비용 및 사업전환비용)	16.7%
후속 상품 출시 지연에 따른 경영상 피해	14.3%
국내 상표심사 지연으로 해외출원 지연 등에 따른 피해	14.3%
모방상품 출현에 따른 피해(법적 대응 비용 포함)	14.2%
이미 등록되어 보유 중인 상표의 가치 하락 피해	10.3%
기타	12.2%
합계	100.0%

* 기타 피해 유형으로 타인의 상표 선점, 상표 등록 피해, 정부 지원금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제품 판매 지연으로 상표 등록 전 폐업 등이 있음

□ **(피해 사례)** 상표 심사처리기간 지연은 사업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신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 >

구분	피해 사례
사업의 불안정성	“광고비 집행 및 영업 수행 상에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상표등록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상황까지 고려할 때 상표심사처리기간까지 장시간 소요되면서 중소기업이 상표 권리화를 통한 사업의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너무 가혹한 환경으로 변함”
신제품 출시 지연	“신규 CI 관련 상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
	“신제품 런칭 일정 무기한 연기”
	“제품에 상표 표기를 못하고, 빠른 출시를 기대하고 제작한 앱의 홍보효과 및 연계상품 판매 무산”
해외 시장 진출 무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 등록 상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장 입점이 어려움”
	“상표 부등록으로 인한 해외 바이어에게 약속 불이행, 수출계약 파기, 거래 무산 등 기업 신뢰도 하락”
해외 상표 등록 장애	“국내 상표 등록 지연으로 해외출원 일정에 차질”
	“심사/등록 지연에 따른 센트럴어택(마드리드 루트) 가능성”
	“미국 출원 시 심사 완료 후 등록 허여 가능한 상태이나 아직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용 기반에서 타국가 등록으로 변경하여 등록받아야 하나, 국내 상표 심사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
모방상품 출현	“타사의 유사상표 등록, 직접 연관성 없는 타사/개인의 상표 선등록 사례 발생하여 동일 제품을 타사에서 출시”
	“상표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모방”
비용부담 증가	“상표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우선심사신청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고,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문서 작성 시간 및 비용 부담 증가”
	“상표등록이 지연될 경우, 제3자의 유사상표/표장 사용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법률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입찰참여 제한	“심사 지연으로 입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입찰 기회 박탈”
폐업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폐업의 직격탄임”

□ (정책 제안) 우선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 개선, 신기술적용이 제안됨

목적	구분	제안 내용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역량 및 절차 강화	우수 심사관 확충, 심사기간 및 프로세스 혁신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 제고
		심사절차의 투명한 공개 및 소통 확대 (예 : 심사완료예정일 안내)
	우선심사 제도 개선	우선심사제도의 개선 및 상표 출원료 인상
		우선심사 신청 방법의 간소화
	이의신청 제도 개선	악의적 이의신청에 대한 페널티 부여
		유명무실한 이의신청 기간의 축소 또는 폐지
	신기술 적용	AI를 이용한 사전심사로 심사기간 단축
		상표검색에서 그래픽으로도 검색 가능한 AI기술 적용
		유사상품 검색엔진 성능 강화
기타	개인출원인 지원	개인출원과 대리인 출원간 등록률 격차 해소 (예 : 상표등록 가능성을 심사 전 판단이 가능토록 서비스)
	심사 관련 서비스 강화	매년 변경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안내
		유사상표 사례, 등록사례에 대한 설명회 필요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연도별 직접적 피해액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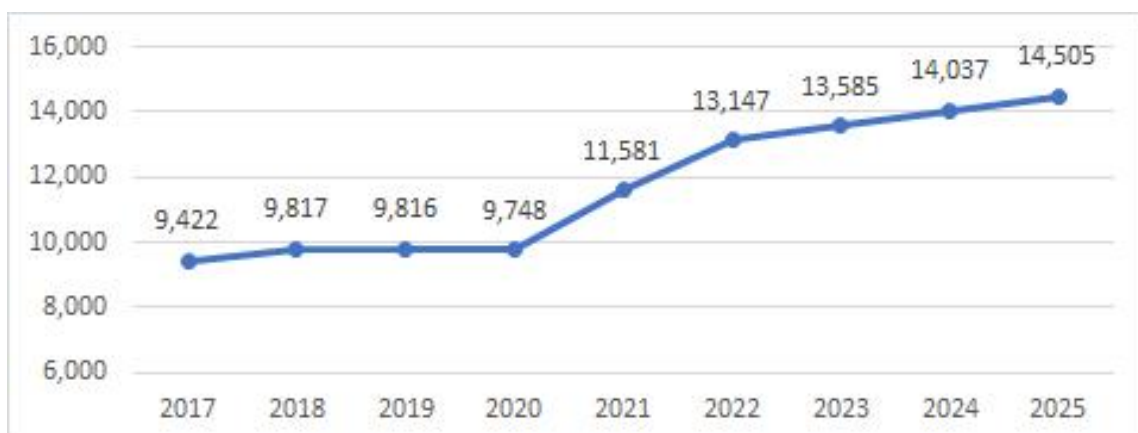
- (추정방법)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은행 및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
- (추정결과) '21년부터 10조원 이상의 직접적 금전 피해액이 발생

< 연도별 직접적 피해액의 추정 > (단위 : 십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기업 매출액 ¹⁾ (A)	3,378,214	3,519,893	3,519,685	3,495,225	4,152,185	4,713,730	4,870,750	5,033,000	5,200,655
상표출원기업의 매출액 (B=A*0.772 ²⁾)	2,607,812	2,717,181	2,717,021	2,698,139	3,205,279	3,638,764	3,759,975	3,885,225	4,014,646
상표출원기업 중 피해기업의 매출액 (C=B*0.547 ³⁾)	1,426,473	1,486,298	1,486,210	1,475,882	1,753,288	1,990,404	2,056,707	2,125,218	2,196,011
직접적 매출액 피해 규모 (D=C*Ratio ⁴⁾)	9,422	9,817	9,816	9,748	11,581	13,147	13,585	14,037	14,505
대기업	2,736	2,850	2,850	2,830	3,362	3,817	3,944	4,076	4,211
중견기업	5,692	5,931	5,930	5,889	6,996	7,942	8,207	8,480	8,762
중소기업	191	199	199	197	234	266	275	284	294
소상공인	453	472	472	469	557	633	654	675	698
개인	350	365	365	362	430	489	505	522	539

- 1)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가공하여 상표 관련 산업의 매출액 산출
- 2) 전체 기업 중 상표출원기업의 매출액 비율이 부재하여,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가공하여 산출한 상표보유기업의 매출액 비율(0.772)을 활용
- 3) 본 연구의 상표출원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심사처리기간지연으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0.547)
- 4) 본 연구의 상표출원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유형별 매출액 대비 피해액 비율* (대기업 0.2%, 중견기업 12.9%,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39.7%, 개인 51.9%)

< 연도별 직접적 피해액 추정 결과 > (단위 : 십억원)



IV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간접적 피해액

1. 분석 방법

□ (기본 가정) 상표심사처리기간 $\uparrow \Rightarrow$ 상표등록건수 $\downarrow \Rightarrow$ 경제적 피해 $\uparrow$

- 상표심사처리 지연에 따라 상표등록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산출되고 그로 인해 생산, 부가가치, 고용이 적게 산출된다고 가정

□ (분석 절차) 다음의 3단계 절차에 의해 분석 수행

- (1단계) 1990~2016년(27년)까지의 상표등록건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17~2022년(6년)의 상표등록건수 예측

※ ARIMA(0,1,0)~ARIMA(5,1,5)까지 36개의 시계열 예측모형을 적용하여 예측오차(MAPE)가 가장 적은 ARIMA(5,1,3) 모형을 최적예측모형으로 선정

- 2015년, 2016년 상표심사처리기간은 각각 4.4개월, 4.8개월로 매우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의 상표심사처리기간 경향이 반영된 상표등록건수 예측치를 산출
- 2017~2022년은 상표심사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현실이 반영된 상표등록건수가 산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2단계) 2017~2022년(6년)의 상표등록 실제건수와 1단계에서의 예측건수를 비교하여 연도별 과소 등록된 상표건수 산출

- 상표심사처리기간이 짧았던 과거의 경향이 반영된 상표등록건수와 상표심사처리기간이 길어진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상표등록건수간 차이(상표등록건수의 감소가 예상됨)를 산출

- (3단계) 선행연구의 생산탄력성* 값과 한국은행 데이터**를 활용 상표등록건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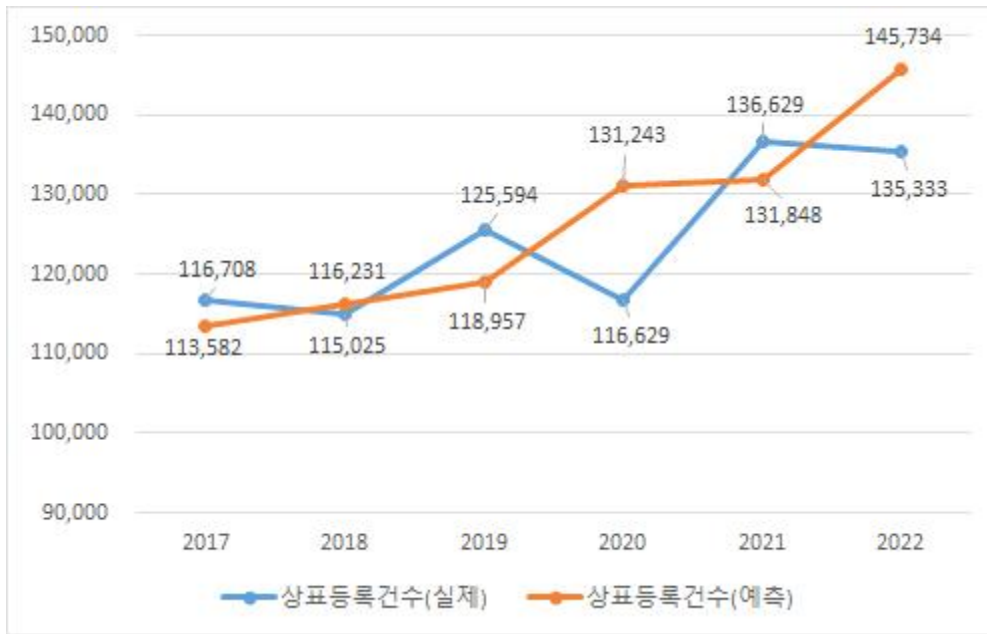
* 상표등록건수 1% 증가 시 생산액 증가 비율(%) : 0.033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매출액, 부가가치율, 고용유발계수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분석 결과

- 1990~2016년까지의 상표등록건수 추세를 반영하여 2017~2022년 상표등록건수 예측결과 11,677건의 상표가 예측보다 과소 등록

< 상표등록건수 실제값과 예측값 비교 >



< 연도별 매출감소 효과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예측(A)	113,582	116,231	118,957	131,243	131,848	145,734	757,595
실제(B)	116,708	115,025	125,594	116,629	136,629	135,333	745,918
차이 (C=A-B)	-3,126	1,206	-6,637	14,614	-4,781	10,401	11,677
D=C/A (%)	-2.8	1.0	-5.6	11.1	-3.6	7.1	1.5
매출감소율*	-0.091	0.034	-0.184	0.367	-0.120	0.236	0.051

* 상표등록건수 감소율 × 생산의 상표탄력성(0.033)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¹⁾의 “기영경영분석/손익계산서”에서 상표
연관 산업*의 2017~2022년 연간 매출액 정보를 다운로드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

1) <https://ecos.bok.or.kr/#/>

< 상표 연관성이 작은 산업분류 >

A. 농업, 임업 및 어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B. 광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F. 건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 상표등록건수 감소에 따른 피해액 추정

○ (생산 피해액) 2017~2022년 동안 10조 6,330억원의 피해가 발생

< 연도별 매출감소 효과 >

(단위 : 십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매출액	3,378,214	3,519,893	3,519,685	3,495,225	4,152,185	4,713,730	22,778,932
매출감소율 (%)	-0.091	0.034	-0.184	0.367	-0.120	0.236	0.051
매출액 감소액	-3,068	1,205	-6,480	12,843	-4,969	11,102	10,633

○ (부가가치 피해액) 2017~2022년 동안 3조 8,150억원의 피해가 발생

< 연도별 부가가치감소 효과 >

(단위 : 십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부가가치	1,121,935	1,152,697	1,139,213	1,177,894	1,396,671	1,492,183	7,480,593
부가가치 감소율*(%)	-0.091	0.034	-0.184	0.367	-0.120	0.236	0.051
부가가치 감소액	-1,021	392	-2,096	4,323	-1,676	3,522	3,815

* 부가가치 감소율 = 매출 감소율이라고 가정

○ (고용 피해액) 2017~2022년 동안 매출액 손실에 따른 취업* 손실 54,812명, 고용** 손실 38,818명 발생

*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 상표 연관 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

(단위 : 십억원)

산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 제조업	C10 식료품	95,113	103,735	106,500	115,391	127,870	147,570
	C11 음료	11,601	11,861	12,014	11,521	12,208	13,857
	C13 섬유제품(의복제외)	26,061	28,081	27,802	27,176	27,925	29,568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43,702	43,941	43,892	39,579	45,034	53,025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11,171	11,035	11,851	9,367	10,110	11,919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8,449	8,773	8,159	8,123	9,875	10,301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3,592	24,738	24,192	24,831	27,953	30,841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808	9,151	9,487	9,382	10,226	10,806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0,278	135,753	126,693	83,217	130,831	218,036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190,792	214,808	198,902	179,030	229,893	272,262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3,389	25,509	27,302	33,503	39,924	41,928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59,723	60,170	60,242	59,415	64,419	72,179
	C23 비금속 광물제품	44,655	43,578	41,804	41,687	46,799	49,633
	C24 1차 금속	145,815	149,352	144,638	138,415	187,779	212,009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61,391	64,137	69,235	69,251	76,004	86,44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60,649	379,636	346,254	372,826	445,846	467,19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4,419	25,743	25,382	26,286	30,219	34,900
	C28 전기장비	104,665	105,510	105,609	111,620	125,243	144,859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120,151	115,060	116,328	115,973	139,383	153,57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60,424	259,272	271,685	262,261	292,305	336,009
	C31 기타 운송장비	59,005	53,096	48,792	50,624	48,199	56,137
	C32 가구	10,058	10,677	10,351	9,646	11,910	12,192
	C33 기타 제품 제조업	12,311	11,905	12,200	12,228	13,839	15,039
	C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348	1,230	1,161	1,285	698	818
G 도매 및 소매업		847,358	895,511	908,245	928,250	1,081,366	1,203,147
H 운수 및 창고업		172,780	178,599	184,967	174,073	226,664	284,249
I 숙박 및 음식점업		31,929	33,685	36,308	29,463	34,008	42,655
J 정보통신업		165,118	170,210	183,078	190,423	223,898	242,201
L 부동산업		173,920	166,611	158,741	170,986	196,264	195,78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785	66,684	75,986	84,983	113,328	116,21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421	75,527	82,640	77,333	89,286	104,316
P 교육 서비스업		8,864	9,181	10,378	9,984	12,180	12,62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470	27,132	28,867	17,095	20,699	31,410
총계		3,378,214	3,519,893	3,519,685	3,495,225	4,152,185	4,713,730

< 상표 연관 산업의 연도별 부가가치 >

(단위 : 십억원)

산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 제조업	C10 식료품	19,831	22,345	23,334	25,398	26,955	28,761
	C11 음료	4,102	4,264	4,384	4,331	4,516	4,944
	C13 섬유제품(의복제외)	6,891	7,127	7,287	8,036	7,199	7,371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8,675	8,683	8,928	7,817	9,556	12,153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2,567	2,457	2,735	2,086	2,330	2,676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2,005	2,118	2,047	2,049	2,394	2,425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858	5,744	5,850	6,429	6,460	6,794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74	3,272	3,472	3,496	3,645	3,760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366	10,209	8,792	-583	16,511	25,706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44,817	44,873	39,999	40,908	50,599	46,393
	C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9,444	9,824	10,361	14,303	17,171	16,968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7,039	16,980	17,645	17,819	17,689	18,268
	C23 비금속 광물제품	12,191	11,644	11,291	11,718	12,299	12,279
	C24 1차 금속	26,203	26,376	24,791	23,877	36,561	35,300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7,994	18,696	21,878	22,029	22,368	24,73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5,332	169,280	115,718	135,522	179,007	171,50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105	8,475	8,640	9,166	10,326	12,128
	C28 전기장비	23,173	23,729	24,797	27,380	27,942	31,85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35,973	34,771	35,748	35,337	39,961	44,12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54,455	52,269	56,592	51,613	57,467	64,648
	C31 기타 운송장비	14,031	11,649	11,320	10,712	5,818	9,061
	C32 가구	2,546	2,598	2,631	2,429	3,005	2,915
	C33 기타 제품 제조업	3,484	3,662	3,684	3,716	4,197	4,700
	C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755	717	573	521	377	387
G 도매 및 소매업		363,432	379,965	396,267	417,155	477,423	517,594
H 운수 및 창고업		51,229	51,472	55,583	50,829	69,812	87,293
I 숙박 및 음식점업		13,196	14,326	16,171	11,986	14,549	19,028
J 정보통신업		65,370	67,199	73,433	78,854	91,619	92,521
L 부동산업		48,837	44,485	41,273	46,731	55,739	52,43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220	33,082	37,811	43,554	54,635	56,00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6,610	49,032	53,112	52,169	54,938	61,286
P 교육 서비스업		3,889	3,970	4,604	4,305	5,208	5,41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144	7,404	8,461	6,205	8,393	10,761
총계		1,121,935	1,152,697	1,139,213	1,177,894	1,396,671	1,492,183

< 상 표 연 관 산 업 의 연 도 별 고 용 피 해 >

(단위 : 십억원)

산업명		매출손실 (십억원)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유발 피해	고용유발 피해
C 제조업	C10 식료품	372	29	23	1,067	873
	C11 음료	32	1.9	1.8	62	57
	C13 섬유제품(의복제외)	71	4.1	3.2	290	230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11	4.3	3.5	479	388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22	5.1	3.9	114	87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23	3.4	2.8	78	64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3	2.5	2.4	184	174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6.4	4.5	162	114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376	0.2	0.2	66	64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558	1.2	1.1	665	635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11	20	20	220	218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67	2.8	2.6	466	435
	C23 비금속 광물제품	111	2.7	2.3	299	256
	C24 1차 금속	436	1.0	1.0	455	440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06	3.3	2.9	677	588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102	1.6	1.5	1,775	1,699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3	2.2	2.0	180	166
	C28 전기장비	348	3.0	2.7	1,028	937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337	2.0	2.0	684	666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757	3.9	3.8	2,935	2,854
	C31 기타 운송장비	135	2.5	2.4	332	328
	C32 가구	25	4.4	3.3	111	83
	C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7.2	4.6	246	159
	C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3	6.3	4.4	18	13
G 도매 및 소매업		2,815	9.7	5.8	27,183	16,315
H 운수 및 창고업		602	9.0	5.0	5,403	3,034
I 숙박 및 음식점업		84	11.7	6.2	978	520
J 정보통신업		573	4.5	4.1	2,591	2,349
L 부동산업		461	2.2	1.5	993	68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9	6.1	5.2	1,705	1,44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29	11.3	10.5	2,585	2,403
P 교육 서비스업		28	11.0	8.8	306	24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	10.8	6.6	475	293
총계		10,633			54,812	38,818

3. 상표심사 처리현황을 고려한 피해액 추정

□ (방법 ①) 출원건수-처리건수-등록건수 간 비율 적용

- (1단계) 최근 발표된 2023년 데이터 반영
 - * 2023 지식재산 통계연보(2024년 7월 발간)
- (2단계) 2013~2023년의 상표출원건수(단류)의 연평균증가율(CAGR = 6.6%)을 적용하여 2024~2025년 상표출원건수(단류) 출원건수 예측
- (3단계) 2013~2023년의 상표출원건수(다류)/상표출원건수(단류) 평균 비율(1.259)을 적용하여 2024~2025년 상표출원건수(다류) 예측
- (4단계) 2013~2023년의 심사처리건수(다류)/상표출원건수(다류)간 비율의 선형변화 관계*를 적용하여 2024~2025년 심사처리건수(다류) 예측
 - * $\text{심사처리건수(다류)/상표출원건수(다류)} = -0.0191 \times \text{연도} + 0.9929$
- (5단계) 2013~2023년의 상표등록건수(다류)/심사처리건수(다류)간 비율의 선형변화 관계*를 적용하여 2024~2025년 상표등록건수(다류) 예측
 - * $\text{상표등록건수(다류)/심사처리건수(다류)} = 0.0043 \times \text{연도} + 1.4726$
- (6단계) 2013~2023년의 상표등록건수(단류)/상표출원건수(다류) 평균 비율(0.789)을 적용하여 2024~2025년 상표등록건수(다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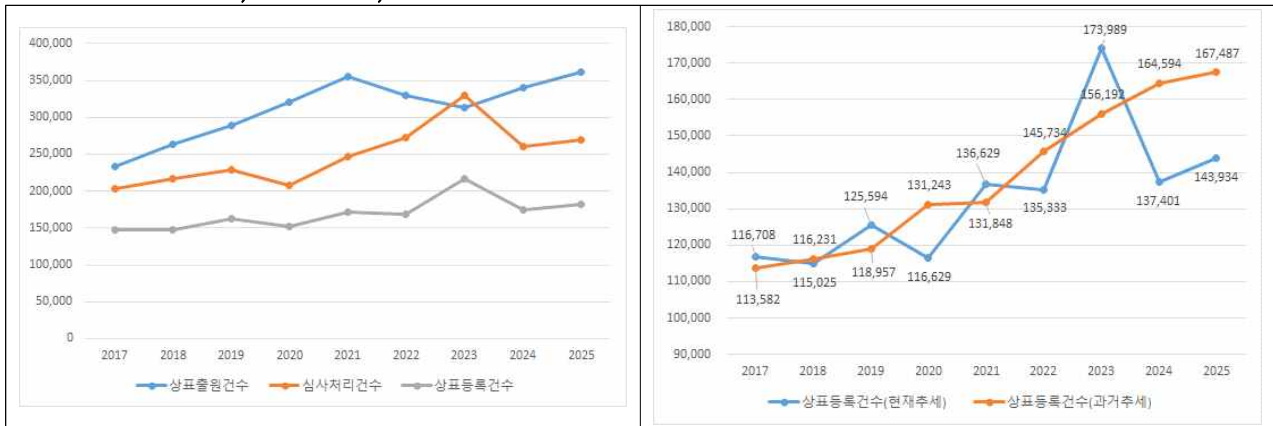
< 상표등록건수 예측 >

※ 음영 부분은 예측값

연도	상표출원건수 (단류)	상표출원건수 (다류)	심사처리건수 (다류)	상표등록건수 (다류)	상표등록건수 (단류)
2013	147,667	177,685	172,607	125,846	100,094
2014	150,226	183,815	202,687	126,938	99,701
2015	185,443	239,334	221,602	144,990	114,747
2016	181,606	227,762	218,370	152,165	119,255
2017	182,918	233,892	203,129	147,350	116,708
2018	200,341	263,140	216,961	146,863	115,025
2019	221,507	288,384	228,542	162,775	125,594
2020	257,933	320,695	207,692	152,347	116,629
2021	285,821	355,614	247,201	171,259	136,629
2022	259,078	329,719	272,793	168,118	135,333
2023	255,209	313,533	329,425	216,621	173,989
2024	272,152	342,772	261,775	175,335	138,113
2025	290,219	365,528	272,172	184,824	145,587

- (7단계) 상표등록건수의 과거 추세(상표심사처리기간이 짧았던 시기)가 반영된 예측값과 현재 추세(상표심사처리기간이 길어진 시기)가 반영된 예측값을 비교하여 매출액 피해규모를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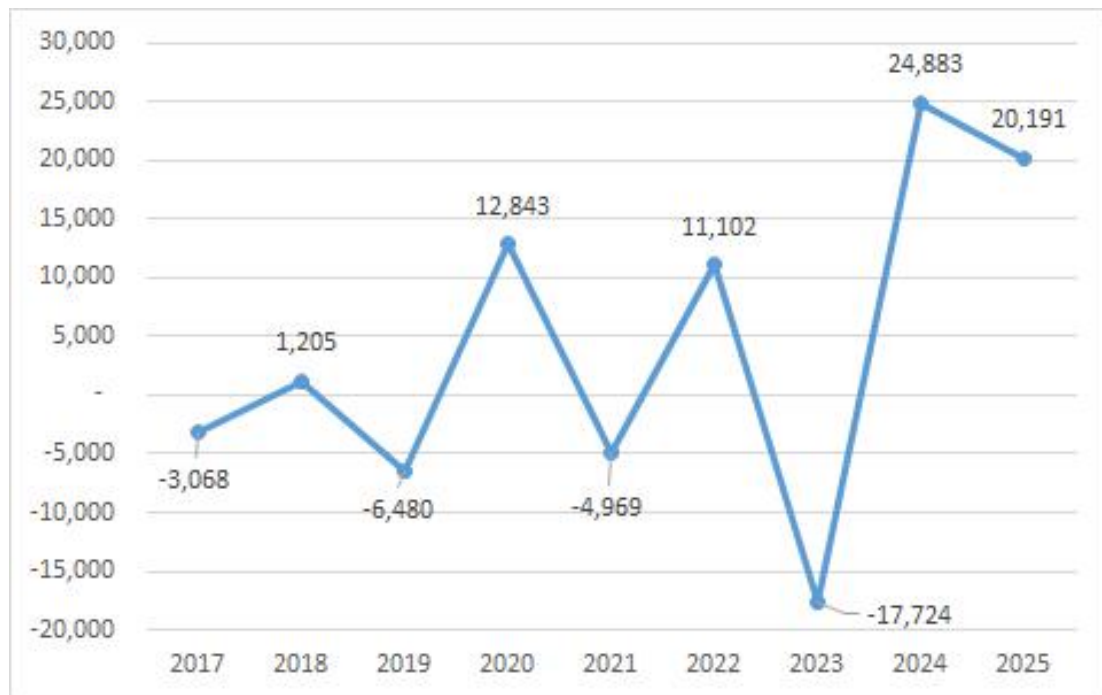
< 상표 출원건수, 처리건수, 등록건수(다류) > < 추세 유형별 상표등록건수(단류) 변화 >



- ☞ '23년까지는 상표등록건수 증감에 따라 피해 규모 등락이 발생하였지만, '24~'25년에는 20조원 이상 규모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상표심사처리 지연의 매출액 피해 규모 전망 >

(단위 : 십억원)



□ (방법 ②) 등록건수 감소 피해 + 심사결과 확인 지연 피해

등록건수 감소 피해액

- (가정 1) 매년 상표심사처리기간의 크기에 비례하여 피해가 발생
- (가정 2) 지난 10년간(2014~2023년) 상표심사처리기간 증가율에 따라 2024~2025년 상표심사처리기간도 증가

< 연도별 국내 일반 상표심사처리기간 및 피해액 추정치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상표심사 처리기간 (개월)	5.8	4.7	4.7	4.9	5.5	6.8	9.5	12.5	15.6	15.6	11.6%
2024	국내일반상표심사처리기간 예측 : $15.6 \times (1 + 0.116) = 17.4$ 개월										
2025	국내일반상표심사처리기간 예측 : $17.4 \times (1 + 0.116) = 19.4$ 개월										

- 향후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피해가 점차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앞서 지난 6년간(2017~2022년) 10조 6,330억원(연평균 1조 7,72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향후 3년간 10조 5,160억원(연평균 3조 3,505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2017~2025년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피해액 추정치 >

(단위 : 십억원)



심사결과 확인 지연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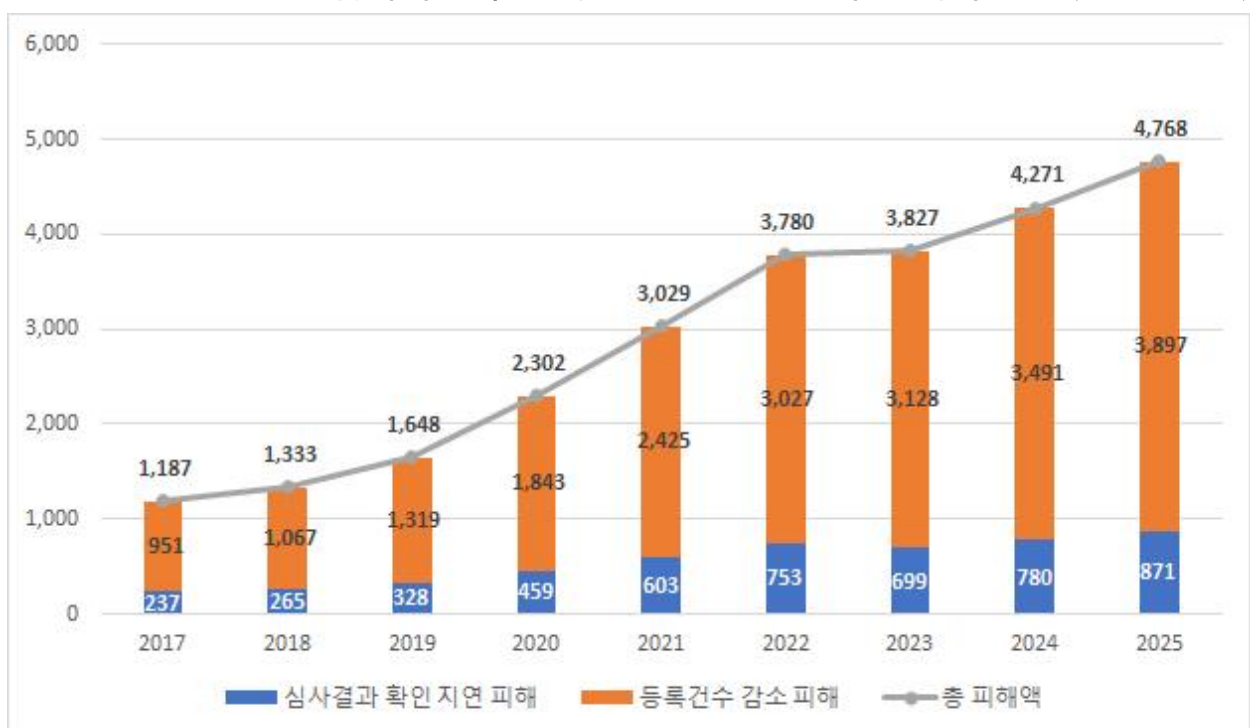
- (가정 1) 비록 등록되지는 못했지만 해당 심사결과 확인이 지연되어 상품 출시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
- (가정 2) 심사결과 확인 지연 피해는 부등록 처리건수(=심사처리건수 - 등록건수)에 비례하여 발생
 - ※ 심사결과 확인 지연 피해액('17~'22) = 연도별 등록건수 피해액(10조 6,330억원) × 국내 상표 보유기업 대비 미보유기업의 상대적 매출액 비율(0.295) × 등록건수 대비 부등록 처리건수 평균 비율(0.842) × 연도별 심사처리기간의 상대적 비율
- 심사결과 확인 지연 피해는 지난 6년간('17~'22) 2조 6,450억원이 발생, 향후 3년간('23~'25) 2조 3,500억원이 발생 전망

< 연도별 부등록 심사처리건수 및 그 피해액 > (단위 : 건, 십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등록 심사처리건수	86,421	101,936	102,948	91,063	110,572	137,460	-	-	-
피해액	237	265	328	459	603	753	699	780	871
	2,645 (연평균: 441)						2,350 (연평균: 783)		

☞ 등록건수 감소 및 심사결과 확인 지연으로 매년 4조원대의 매출액 피해 전망

< 연도별 심사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매출액 피해액 > (단위 : 십억원)



부가가치 및 고용 피해액

- (부가가치) 앞에서 추정된 2017~2022년 부가가치 피해액(3조 8,150억 원)을 기준으로 2017~2025년 심사처리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

※ 2024~2025 심사처리기간은 '14~'23 연평균 심사처리기간 증가율을 곱해 산출

< 연도별 부가가치 피해액 >

(단위 : 십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일반상표 심사처리기간	5.8	4.7	4.7	4.9	5.5	6.8	9.5	12.5	15.6
부가가치 피해액	341	383	473	661	870	1,086	1,122	1,253	1,398

☞ 2023~2025년 매년 1.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피해 전망

- (고용 피해액) 앞에서 추정된 2017~2022년 고용 피해(취업자수 54,812명, 고용자수 38,818명)를 기준으로 2017~2025년 심사처리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

※ 취업자수 =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자수 = 임금근로자

< 연도별 고용 피해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취업자수 피해	4,901	5,501	6,801	9,502	12,503	15,603	16,123	17,997	20,088
고용자수 피해	3,471	3,896	4,817	6,729	8,854	11,050	11,418	11,799	12,192

☞ 2023~2025년 매년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방법 ③) 심사처리기간을 고려한 피해액 추정('19~'23)

- 상표심사지연에 따른 상표출원기업의 연매출액 대비 피해 규모를 파악, 심사처리기간과 연계하여 피해액을 추정
 - (심사처리기간 환산방식) 적정심사처리기간을 초과하는 비중(실제지연기간)에 따라 피해액을 비례 배분
 - (등록건수 피해방식) 앞서 산출한 피해(등록건수 감소에 따른 피해 + 거절 확인 지연에 따른 피해)를 심사처리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
- (심사처리기간 환산방식) 매출액 피해 8.9조원 (연평균 1.8조원)
- (등록건수 피해방식) 매출액 피해 13.3조원(연평균 2.7조원)
 - ※ 11.7조원(등록건수 피해) + 1.6조원(거절건수 피해)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피해액 산출 결과 > (단위 : 십억원)



< 심사처리기간 환산방식에 의한 피해액 추정 결과 >

(단위 : 건(개), 백만원, 개월)

연도	상표출원건수 (A)	전체기업수 (B)	상표연관산업의 매출액(C)	상표출원기업의 매출액 (D=C*(A/B))	상표심사지연 피해기업의 매출액 (E=D*0.547)	상표심사지연에 의한 매출액 피해액						심사 처리 기간 (L)	6개월 초과 기간 (M=L-6)	초과기간 환산에 의한 피해액 (N=K*(M/12))
						대기업 피해액 (F=E*0.507 *0.002)	중견기업 피해액 (G=E*0.151 *0.129)	중소기업 피해액 (H=E*0.299 *0.015)	소상공인 피해액 (I=E*0.027 *0.397)	개인 피해액 (J=E*0.016 *0.519)	총 피해액 (K=F+G+H+ I+J)			
2019	221,507	6,893,706	3,519,684,800	113,093,715	61,862,262	62,728	1,205,015	277,452	663,102	513,704	2,722,001	6.8	0.8	181,467
2020	257,933	7,295,451	3,495,225,202	123,574,803	67,595,417	68,542	1,316,691	303,165	724,555	561,312	2,974,266	9.5	3.5	867,494
2021	285,821	7,723,867	4,152,184,681	153,651,219	84,047,217	85,224	1,637,156	376,952	900,902	697,928	3,698,162	12.5	6.5	2,003,171
2022	259,078	8,053,163	4,713,730,264	151,645,237	82,949,944	84,111	1,615,782	372,031	889,140	688,816	3,649,881	15.6	9.6	2,919,904
2023	255,209	8,458,195	5,038,488,170	152,026,227	83,158,346	84,323	1,619,841	372,965	891,374	690,547	3,659,050	15.6	9.6	2,927,240

- Notes : 1. 전체기업 수(B)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 중 2023년 데이터는 2017~2022년 연평균 증가율 5.0%를 적용하여 산출.
2. 상표 연관 산업의 매출액(C)은 한국은행의 손익계산서 상에서 33개 업종을 선정한 후 해당 업종들의 연도별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2023년 상표관련 매출액은 2017~2022년 연평균 증가율 6.9%를 적용하여 산출.
3. 상표 출원기업의 매출액(D)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상표출원만 한다는 가정하에 산출.
4. 상표심사지연 피해기업의 매출액(E)에 적용된 0.547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상표출원기업 중 54.7%가 상표심사지연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응답 결과를 활용.
5. 기업 유형별 매출액 피해액(F, G, H, I, J)은 한국은행의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산출한 ‘기업 유형별 매출액 비중’(대기업 50.7%, 중견기업 15.1%, 중소기업 29.9%, 소상공인 2.7%, 개인 1.6%)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기업 유형별 매출액 대비 피해율’(대기업 0.2%, 중견기업 12.9%,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39.7%, 개인 51.9%)을 적용하여 산출.

< 등록건수 피해 산출방식에 의한 피해액 추정 결과 >

(단위 : 건, 백만원, 개월)

연도	상표등록건수 예측 (A)	상표등록건수 실제 (B)	상표등록건수 감소율 (C=(A-B)/A)	매출감소율 (D=C*0.033)	상표 연관 산업의 매출액(E)	상표 연관 산업의 매출액 피해액 (F=E*C)	연도	심사 처리기간 (H)	심사처리기간에 따른 비례배분을 적용한 매출액 피해액 (I=G*(H/ΣH))
2017	113,582	116,708	-0.028	-0.0009	3,378,213,913	-3,068,178	2017	4.9	950,789
2018	116,231	115,025	0.010	0.0003	3,519,893,119	1,205,227	2018	5.5	1,067,212
2019	118,957	125,594	-0.056	-0.0018	3,519,684,800	-6,480,366	2019	6.8	1,319,462
2020	131,243	116,629	0.111	0.0037	3,495,225,202	12,843,461	2020	9.5	1,843,366
2021	131,848	136,629	-0.036	-0.0012	4,152,184,681	-4,968,620	2021	12.5	2,425,481
2022	145,734	135,333	0.071	0.0024	4,713,730,264	11,101,787	2022	15.6	3,027,001
2017~2022년 심사처리기간 지연의 매출액 피해액(G=ΣF)						10,633,310	2023	15.6	3,127,834

- Notes : 1. 상표등록건수 예측(A)은 1990~2016년(27년)까지의 상표등록건수 증가 추세를 반영한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산출.
2. 매출감소율(D)는 상표등록건수 1% 감소 시 매출액이 0.033% 감소한다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
3. 매출액 피해액(I)의 2023년 값은 2022년과 2023년의 심사처리기간이 동일하므로 2022년 대비 2023년 GDP 증가율 3.3%를 2022년 피해액에 적용하여 산출.

< 거절건수 피해 산출방식에 의한 피해액 추정 결과 >

(단위 : 건, 백만원, 개월)

연도	상표심사 처리건수 (A)	상표 등록건수 (B)	상표 거절건수 (C=A-B)	등록건수 대비 거절건수 비율 (D=C/B)	연도	심사 처리기간 (F)	심사처리기간에 따른 비례배분을 적용한 매출액 피해액 (G=E*(F/ΣF))
2017	203,129	147,350	55,779	0.379	2017	4.9	125,893
2018	216,961	146,863	70,098	0.477	2018	5.5	141,308
2019	228,542	162,775	65,767	0.404	2019	6.8	174,709
2020	207,692	152,347	55,345	0.363	2020	9.5	244,078
2021	247,201	171,259	75,942	0.443	2021	12.5	321,156
2022	272,793	168,118	104,675	0.623	2022	15.6	400,802
거절건수 매출액 피해액('17~'22) (E = 등록건수 매출액 피해액('17~'22) * D의 평균값('17~'22)* 상표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상표미보유기업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22))				10,633,310 * 0.448 * 0.295 = 1,407,946	2023	15.6	414,153

- Notes : 1. 매출액 피해액(G)의 2023년 값은 2022년과 2023년의 심사처리기간이 동일하므로 2022년 대비 2023년 GDP 증가율 3.3%를 2022년 피해액에 적용하여 산출.
2. 상표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상표미보유기업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0.295)는 통계청의 2022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V

주요 피해기업 대상 인터뷰

□ A社* 지식재산담당자

* (업종) 건축자재 제조업, (2023년 매출액) 3.1조원, (기업유형) 대기업

- 당사는 상표 등록 전 리스크를 안고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극적·보수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90년대 후반 계열사 분리 전에 상표 등록 전 제품 판매를 실시했으나 상표 미등록으로 제품 회수 조치를 하기도 함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상표등록확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제품 판매를 진행함
- 따라서, 상표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공격적 시장공략 기회를 제공하기에 기업에게 무조건 이익

□ B社* 지식재산담당자

* (업종) 홍삼 제품 제조 및 도소매, (2023년 매출액) 1.2조원, (기업유형) 대기업

- 당사는 대부분 “상표 조사 → 상표 출원 → 제품 출시” 과정을 거쳐 제품 출시 전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노력 중
- 그런데 최근 상표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되어 타사의 상표 심사 결과 및 자사의 상표 등록/사용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있음
- 이로 인해 다른 제품 네이밍을 고려하거나 상표 재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 제품 출시 후 상표 거절 결정이 발생
- 사업부서와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며 제품 출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심사처리기간이 짧아진다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제품 출시 전에 안전하게 제품명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C社* 지식재산담당자

* (업종) 화학, (2023년 매출액) 5.1조원, (기업유형) 대기업

- 당사는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상품출시가 지연되어 그에 따른 매출액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확장 및 후속 브랜드 출시도 지연되어 경영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상품출시가 불가피하여 등록될 줄 알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뒤늦게 거절되어 사업을 전환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
- 모방상품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심사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서 등록이 되는 시점에는 모방상품이 내려지고 사라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미국 등 사용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증거 마련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상표 등록증을 기초로 하여 출원을 하는데 국내상표 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해외출원이 지연되거나 등록증 제출 기간 연장을 계속 신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 D社* 지식재산담당자

* (업종) 담배제조업, (2023년 매출액) 3.6조원, (기업유형) 대기업

- 글로벌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 시, 로컬라이징 상표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로컬라이징 상표는 국내 미사용, 불사용취소심판에 따른 센트럴어택*의 위험이 큰 편
 - * 국내 기초상표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거나 등록된 권리가 소멸될 경우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도 권리가 소멸
- 당사는 센트럴어택 리스크 절감을 위하여 우선심사청구 및 국내 등록 결정 확인 후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해 옴
- 그러나, 금년부터 ‘전문 조사기관 활용*’을 통한 우선심사청구가 불가능해져 심사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음

* (舊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시 상표전략의 다각화를 위해 로컬라이징 상표의 권리보호 정책이 신설이 되었으면 함

□ E社* 지식재산담당자

* (업종) 통신업, (2023년 매출액) 12.6조원, (기업유형) 대기업

- 당사는 해외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이 필요하여 마드리드 출원을 준비하였으나, 국내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
 - 국내 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국내 등록이 안되는 경우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드리드 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됨
- 또한, 당사는 제품 출시전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을 확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출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심사 대기 중이고 심사 완료 시점이 예상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우선심사’를 신청
 - 과거 심사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예상하였을 때는 출원 후 1년 시점이면 이미 등록증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임에도, 심사가 계속 대기 중인 상황이라 불필요하게 우선심사 신청 비용을 지출하는 케이스 발생

□ F社* 지식재산담당자

* (업종) 정보교류 관련 비영리단체, (2023년 매출액) 373억원 (기업유형) 중소기업

- 당사 브랜드를 사칭하여 자금조달, 도메인 수수료 결제 등을 요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발생

VI 요약 및 제언

1. 분석 결과 정리

- (상표심사처리기간) 출원인들은 상표심사처리기간으로 9.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상표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15.0개월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5.4개월 지연되었다고 인식

< 기업유형별 상표심사처리기간 인식 >

구분	기대기간 (A)	실제기간 (B)	B-A
대기업	12.2	19.7	7.7
중견기업	12.4	14.3	1.9
중소기업	9.7	14.9	5.2
소상공인	9.0	15.2	6.2
개인	8.3	13.2	4.9
전체	9.6	15.0	5.4

- (피해 유형)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은 ‘상품 출시 지연으로 매출액 손실’ (18.0%)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시켰고 이어서 ‘상표가 등록될 줄 알고 투자한 비용 피해’ (16.7%)가 뒤를 이었음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피해 유형 >

구분	피해 비중(%)
해당 상품출시 지연에 따른 매출액 손실	18.0
등록될 줄 알고 투자한 비용(매물비용 및 사업전환비용)	16.7
후속 상품 출시 지연에 따른 경영상 피해	14.3
국내 상표심사 지연으로 해외출원 지연 등에 따른 피해	14.3
모방상품 출현에 따른 피해(법적 대응 비용 포함)	14.2
이미 등록되어 보유 중인 상표의 가치 하락 피해	10.3
기타 (정부 지원금 가산점 피해 등)	12.2

- (직접적 피해 규모)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응답기업(n=55)의 평균 피해액은 13.7억원(총 727.2억원)이었고 이는 매출액 대비 1.0% 수준

<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 >

응답자 유형	피해 규모 (평균)	연 매출액 (평균)	매출액 대비 피해 규모
대기업	55.2	26,350	0.2%
중견기업	110.0	850	12.9%
중소기업	3.8	245	1.5%
소상공인	8.6	22	39.7%
개인	6.8	13	51.9%
전체	13.7	1,287	1.0%

- (간접적 피해 규모) 2017~2022년 동안 총 10조 6,330억원의 매출액, 3조 8,150억원의 부가가치, 54,812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

< 연도별 부가가치감소 효과 >

상표등록감소	매출액 피해	부가가치 피해	고용피해
11,677건	10,633(십억원)	3,815(십억원)	취업자수 54,812명 임금근로자 38,818명

2. 정책적 제언

- (심사역량 강화) 심사관 확충, AI 등 신기술 도입, 출원인과 소통 확대
- (심사관 증원) 상표출원건수의 증가, 우선심사 신청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표심사관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 * ('19) 출원건수 20만건, 심사관수 146명 → ('21) 출원건수 27만건, 심사관수 149명
(출처 :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
 - (AI를 적용한 사전심사 강화) 심사관용 유사상표 검색엔진 도입 및 상표등록가능성 사전 검토 서비스 제공
 - (소통 확대) 매년 변경되는 지정상품 고시명칭에 대한 홍보 강화, 출원인 대상 알람서비스(예 : 심사완료시점 등) 활성화
- (제도개선) 우선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 개선
- (우선심사 요건 정비) 우선심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상표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실제 사용 중인 상표나 분쟁 중인 상표 중심으로 정비
 - * '19년 238건 → '20년 1,456건 → 21년 8,202건 → '22년 14,827건
 - (이의신청) 현행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하되, 충분한 이의신청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미국과 같이 이의신청기간 연장 허용
 - * 현재 발효 중인 한-미, 한-중, 한-EU FTA에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제도 폐지는 불가능(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참고문헌

London Economics(2010), Patent Backlogs and Mutual Recognition, UKIPO's Economic Study.

산업연구원(2007),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특허청 정책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본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22), 한국형 수수료 체계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특허청 정책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23),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방향, 특허청 정책연구.

붙임 1. 상표심사처리기간 관련 출원인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은 현재의 상표 심사처리기간이 적절한지 상표 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우리 기업이 겪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자, 한국 지식재산연구원에 위탁하여 상표 출원인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상표 심사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관련 문의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연구위원 (hjlim@kiip.re.kr, 02-2189-2627)입니다.

※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보호됩니다.

1. 귀하는 최근(2019년~2024년) 상표출원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가 속한 기업의 유형을 표기해 주세요.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④ 소상공인 ⑤ 개인

3. 귀하는 상표심사처리기간(출원일부터 1차 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까? (참고 : 2022년 상표심사처리기간 13.9개월, 응답 예시 : 14.1개월)

()개월

4. 귀하의 상표출원에 대한 실제 상표심사처리기간(출원일부터 1차 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참고 : 2022년 상표심사처리기간 13.9개월, 응답 예시 : 14.1개월)

()개월

5. 귀하가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겪은 총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응답 예시 : 100.5억원)

()억원

6.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귀하에게 발생한 피해 유형별 비중을 표시해 주세요.

피해 유형	피해 비중(%)
① 해당 상품출시 지연에 따른 매출액 손실	
② 후속 상품 출시 지연에 따른 경영상 피해	
③ 등록될 줄 알고 투자한 비용(매물비용 및 사업전환비용)	
④ 모방상품 출현에 따른 피해(법적 대응 비용 포함)	
⑤ 국내상표심사 지연으로 해외출원 지연 등에 따른 피해	
⑥ 이미 등록되어 보유 중인 상표의 가치 하락 피해	
⑦ 기타 ()	
합계	100

7. 귀하가 속한 기업(또는 귀하가 대리한 기업)의 최근 연간 매출액은?
()억원

8. 국내 상표심사 처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9. 향후 정부의 상표 심사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붙임 2.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피해기업 인터뷰안

□ 추진배경

-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상표의 조기 권리화가 중요함에도 최근 상표 심사처리기간이 점차 지연되는 경향이 발생
- 특허청은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기업 인터뷰 대상

- 상표출원 경험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 기업 인터뷰 내용

- 국내 상표심사 처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출시 지연에 따른 매출액 손실
- 후속 상품 출시 지연에 따른 경영상 피해
- 등록될 줄 알고 투자한 비용(매물비용 및 사업전환비용)
- 모방상품 출현에 따른 피해(법적 대응 비용 포함)
- 국내상표심사 지연으로 해외출원 지연 등에 따른 피해
- 이미 등록되어 보유 중인 상표의 가치 하락 피해

- 현재 상표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3.9개월인데 몇 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월
- 상표심사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